

김이강 서구청장, ‘ESG 기반 아동친화사업’ 우수사례 소개

광주 서구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ESG 기반의 아동친화사업’ 우수사례가 유니세프 유럽 회원국에 소개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를 방문 중이며, 일정 첫날인 지난 11일 유니세프 스위스&리히텐슈타인 위원회를 찾아 서구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일정은 유니세프 한국-스위스 위원회가 공동 초청한 자리로,

김 청장은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라는 주제로 ESG 기반의 아동친화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유니세프 임직원 및 다국적 회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책 발표와 자유토론 모두 영어로 진행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ESG 중 “E(Environment, 환경) 관련 아동친화사업으로 관내 어린이 숲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 등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인식과 탄소중립,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Social, 사회) 분야 관련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소개하며 “아이들이 직접 자기 자신이 꿈꾸는 방을 구상하고, 친환경소재로 방을 꾸며주면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SNS를 통해 아동학대예방방지를 위한 ‘특별한 하루, 특별한 챌린지 사업’을 진행해 메이저리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희섭 선수, 양궁 금

메달리스트 기보배 선수 등 사회 유명 인사들이 동참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울키즈존 확대 캠페인도 언급했다.

김 청장은 G(Governancel, 지배구조) 분야와 관련해 “아이들이 지역의 놀이터를 직접 전수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놀이환경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정 참여단에 아이들을 포함시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가영 기자

남구,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 우수작 전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을 남구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

남구에 따르면 2023년 더+행복한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회가 19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남구청 1층 로비에서는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을 비롯해 우수상 작품 2점과 장려상 작품 4점, 상을 받지 못했지만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사각 앵글에 담은 작품 13점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작품은 김나연씨 가족의 ‘행복한 아버지날’이다.

6명의 자녀가 용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아버지날 축하 파티를 연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가족 구성원의 해맑은 미소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우수상은 김선옥씨 가족의 ‘행복한 우리 다둥이 가족’과 허웅씨 가

족의 ‘열무와 네 가족’ 작품이 각각 차지했다.

김선옥씨 가족은 늦둥이인 4번째 막내아들의 출산 후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큰딸과 둘째딸, 막내딸의 축스러워하는 표정이 압권이며, 늦둥이를 안고 있는 남편과 곁에 있는 김선옥씨의 미소에서 가족의 행복함이 묻어난다.

허웅씨 가족은 올해 태어날 예정으로, 엄마 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둘째 열무(태명)를 향한 가족 사랑의 마음을 사진으로 표현했다.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열무와 누나, 남편 허씨, 아내의 상큼한 미소에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밖에 장려상 수상작은 채정아씨 가족의 ‘널 만나 사랑을 배우다’ 작품과 홍내경씨 가족의 ‘한라봉 자매와 딸바보 아빠’ 작품, 신재갑씨 가족의 ‘3단 햄버거 놀이’ 작품, 최수진씨 가족의 ‘아빠 품이 제일 좋아’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정희태 기자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내달 20일까지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전남대학교 JOB FESTA’와 연계 추진된다.

온라인 일자리 매칭은 내달 20일까지 잡코리아 사이트에 개설된 북구 전용 채용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일자리 매칭데이는 19일 전남대학교 컨벤션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일자리 매칭 절차는 참여기업이 온라인채용관에 구인 정보를 게시하면 구직자가 채용정보 확인 후 본인인 희망하는 기업에 입사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북구는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는 19일 공기업 6개, 우수 중소기업 14개 등의 현장 채용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구직자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현지 인사 담당자의 취업 컨설팅, 4차산업 명사 초청 특강, VR 면접, 일자리정책 홍보관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자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해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광주 동구는 최근 ‘청년의 날’(9월 16일)을 맞아 마련한 제3회 동구 청년총회 ‘나를 알아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동구 청년참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청년총회는 MBTI(성격 유형검사)를 접목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길 바라는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동구청 제공

동구 청년총회, ‘나를 알아줘’ 성료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청년의 날’(9월 16일)을 맞아 마련한 제3회 동구 청년총회 ‘나를 알아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2030 젊은 층의 관심과 접근성을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개최했던 동구 인문학당에서 시내 중심가인 5·18민주광장으로 옮겨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유도했다는 평가다.

동구 청년참여위원회(위원장 김지복)가 주최한 이번 청년총회는 MBTI(성격 유형검사)를 접목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길 바라는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1부는 청년 활동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소통의 달인, 동구청장에게 무물(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운영해 청년들의

의견·고민·희망을 나누는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MBTI 대항전 ‘폴go, 받go, 마시go, 놀go’ 운영을 통해 청년 등 전 세대들이 화합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년정책 관련 퀴즈이벤트와 빈집 청년창업자, 청년 자율공간 운영자 등이 마련한 플리마켓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유빈 기자

광산구, 중소기업 노사갈등 예방 지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사문화 구축을 지원하는 ‘노사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민선 8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하는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일터혁신 사업의 하나다.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 튼튼한 신뢰 관계 구축을 도와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다.

광산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조직 내 갈등 조정이 필요한 기업, 갈등 발생 경험이 있는 기업, 노사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

그램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의 갈등 현황을 조사·분석, 구성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모의 단체교섭, 역할 연기를 통한 사례 실습 등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갈등 지도 공동 연수(워크숍)를 진행해 상생·협력 노사관계 및 소통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지속성장일자리과 노동지원팀(062-960-84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노사 상생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터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갈등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이번 사업에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공정과 상식